

유아 보호자 교육자료: 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 길라잡이

우리 아이 재적응, 함께 이해하고 돕기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프롤로그: 재적응이 뭐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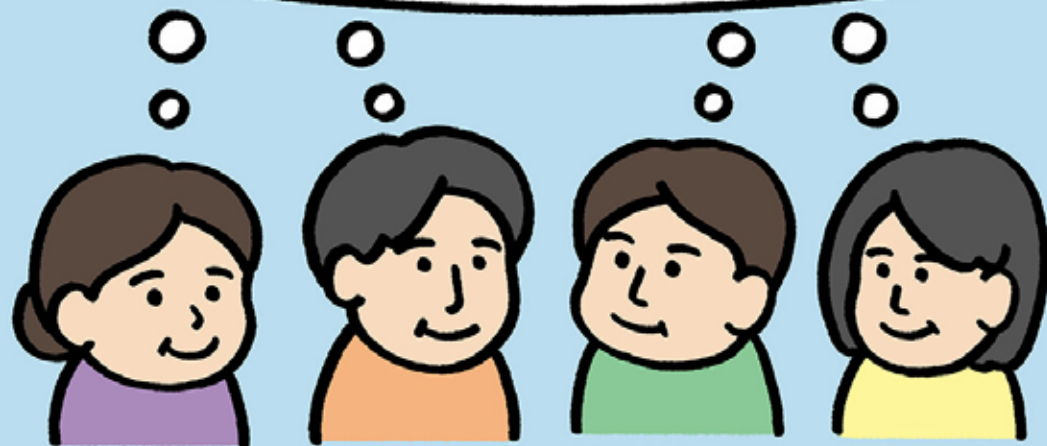


~~어려서
금방 적응할 거야~~

~~이미 기관 생활
해봐서 관찰을 거야~~

~~애들은
금방 친해져~~

~~마음에 안 들면
울기만 돼~~



많은 부모님들이 갖는 재적응에 대한 오해들

 기관 경험이 있어도
새로운 환경은
다시 적응이 필요해요

 아이마다
친해지는
속도가 달라요

 어린 아이일수록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해요

 작은 변화는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미 기관에 다녀본 경험이 있더라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아이는 **다시 적응의 과정**이 필요해요.

재적응의 과정은
모든 연령에서
언제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의 재적응을
함께 이해하고 돕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새로운 기관을 다니게 되었어요.

이사 등으로 기관 이동

하루 일과

낮잠

0세~만5세

만3~5세

기관마다 운영 철학과 접근 방식이 달라요.
하루 일과, 활동 구성, 학급 편성까지
모두 다르죠.

익숙했던 방식이 사라지면
아이는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껴요.

여기는 뭔가 달라....
원래는 지금이
낮잠 시간인데....

우리 반은 낮잠을
자지 않아요.

기관을 옮기게 된 수진이

여기는 동생 반이 많잖아?
그럼 놀이터도 시시하겠네!

전에 다니던 곳이
더 좋았는데....

기관을 옮기게 된 지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해?

여기는 전에
다니던 곳이란
달라서 싫어!

걱정이네....
잘 다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세요!

① 아이와 함께 미리 기관 방문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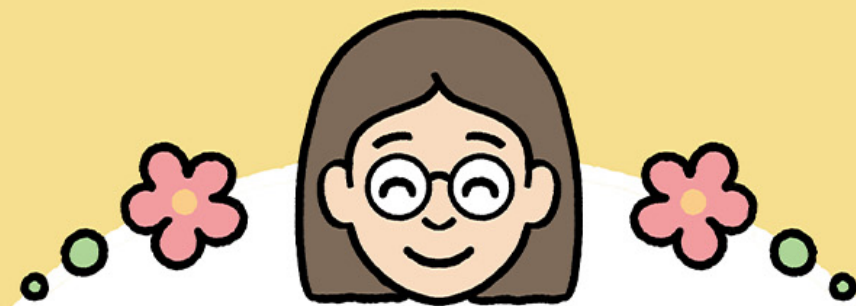
이렇게 도와주세요!

② 자녀의 불편한 감정 충분히 공감해 주기



이렇게 도와주세요!

③ 작은 성공 축하하기



아이가 이전 기관과 비교할 때
충분히 들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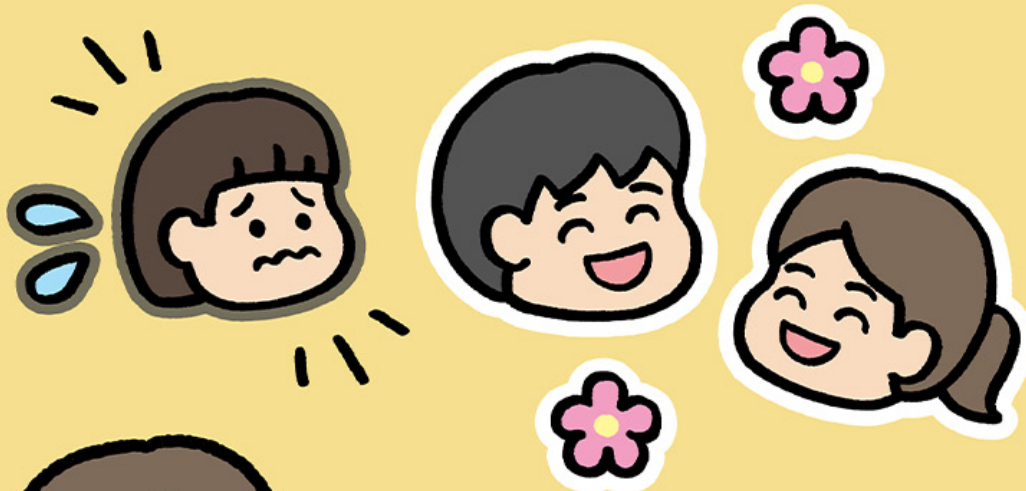
새로운 환경에서의 작은 노력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2. 오랜만에 등원하게 되었어요.

장기간 결석 후 재등원



장기간 결석 후에 느껴지는 공백으로 인해
아이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다시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 또한 힘들죠.



이렇게 도와주세요!

① 기관에 대한 친밀감 회복 도와주기

이진이란
찍은 사진이네?
하늘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하린이 많이 보고 싶겠다~

나도 친구들과 선생님
얼른 보고 싶어!



이렇게 도와주세요!

② 기관의 일과/규칙 다시 연습하기

오늘은 우리집에서도
하늘반처럼 하루를
보내보자.

그럼 간식 먹고서
놀이 시간이겠네!

하늘반의 하루

오전 간식

자유 놀이

정리 정돈

놀이 후에는
무슨 시간이지?

정리정돈!

이진아!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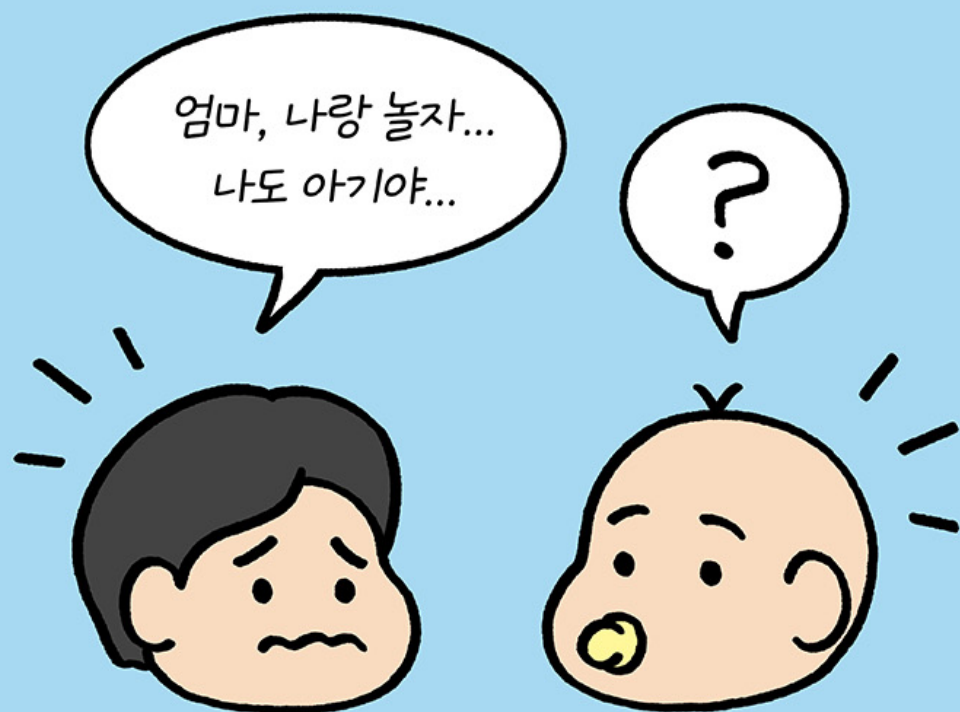
나도! 네가 없어서
정말 심심했어!

같이 놀자!



3. 동생이 생겼어요.

가정 내 환경 변화



준서에게 동생이 생긴 후
일상의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선생님~
저랑만 놀아요!



나만 갖고 놀 거야!
다 내 거야!



기관에서의 준서도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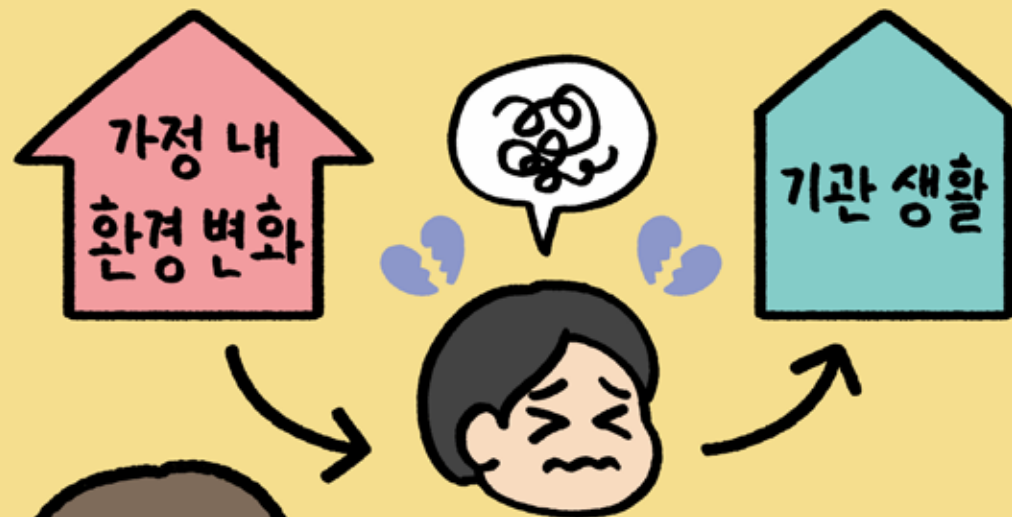
응애~
나도 아기야~

선생님
준서 울어요!

준서는
아기 같아!

급기야 아기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동생의 출생, 이사 등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흔들 수 있어요.



이러한 가정에서의 변화는
아이의 기관 생활에도 영향을 주죠.



이렇게 도와주세요!

① 선생님과 아이의 상태 소통/공유하기



이렇게 도와주세요!

②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 만들기

오늘은 엄마와 준서만의 시간이야.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동생아, 형이야.
잘 지내보자.

우리 준서 정말
멋진 형이네!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